

본당 소식

오늘은 성모 마리아께서 지상 생애를 마치신 다음 하늘로 불러 올라가셨다는 믿을 교리에 따라 성모님의 승천을 기리는 의무 축일이다. 성모님의 승천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초대 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전승에 따른 것이다. 1950년 비오 12세 교황은 성모 승천의 신비를 ‘믿을 교리’로 선포하였다. 성모 승천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될 구원의 영광을 미리 보여 주는 ‘위로와 희망의 표지’이다.

♣ 오늘의 전례

- 오늘은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성자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하늘로 불러올리셨습니다.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신 하느님 안에서 우리도 기뻐하며,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승천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하느님을 찬미합시다.

♣ 내일(8월 16일) 연중 제20주일 미사는 원래대로 오라토리오에서 진행합니다.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173.00€ • 교무금 550.00€

전례 성가

입당 : 236 (사랑하올 어머니)

봉헌 : 210 (나의 생명 드리니)

성체 : 188 (천사의 양식)

파견 : 259 (성모 승천)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뇨

2026년 8월 15일

(백) 성모 승천 대축일

본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티 없이 깨끗하신 동정녀이시며 성자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하늘로 부르시어
그 육신과 영혼이 천상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저희도 언제나 하느님을 그리워하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 당신 사랑을 받는 여인들 가운데, 제왕의 딸들이 있고,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

○ 들어라, 딸아, 보고 네 귀를 기울여라. 네 백성, 네 아버지 집안을 잊어버려라. ◎

○ 임금님이 너의 미모에 사로잡히시리라. 임금님은 너의 주인이시니, 그분 앞에 엎드려라. ◎

○ 기쁨과 즐거움에 이끌려, 임금님 궁전으로 들어가는구나. ◎

제1독서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11,19ㄱ; 12,1-6ㄱㄷ.10ㄱㄴㄷ)

19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계약 궤가 나타났습니다.

12,1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2 그 여인은 아기를 배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3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었으며

일곱 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4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 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 서 있었습니다.

5 이윽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내아이는 쇠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분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이가 하느님께로, 그분의 여좌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6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에는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처소가 있었습니다.
10 그때에 나는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5,20-27ㄱ)
형제 여러분, 20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21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23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24 그러고는 종말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
시키시고 나서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25 하느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아래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26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27 사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 ◎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22-33)
39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40 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42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43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44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45 행복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46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47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48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49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50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51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펼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습니다.
52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53 굵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54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55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56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원자이신 주님, 성모 승천을 기념하는 교회를 굽어살피시어,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헌신과 믿음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도록 도와주소서.

2.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샘이신 주님, 성모 승천 대축일에 광복의 기쁨도 함께 기리는 이 나라를 살피
주시어, 언제나 주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며, 주님의 진리를 찾고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3. 애국선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주님,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친 선열들을 굽어보시어, 그들의 희생
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후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자랑스럽게 살아가게 하소
서.

4.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작은 교회인 가정들을 보살피 주시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가운데 공동체의 삶을 돌아보고 이해와 화해로 나아가며 참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구원의 성사에 참여하고 비오니
하늘에 오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사 랑 하 올 어 머 니 여 우 리 위 로 자 시
2. 모 든 근 심 슬 픔 들 이 우 리 괴 롭 힐 때
3. 깊 은 사 랑 크 신 자 비 가 이 없 이 주 시



여 고 귀 하 온 동 정 녀 여 우 리
에 기 뵈 이 신 마 리 아 여 우 리
는 어 머 니 와 한 맘 으 로 우 리



보 호 하 소 서 동 정 성 모 마 리
도 와 주 소 서 살 게 하 소 서



아 당 신 사 랑 주 소 서 모 든



근 심 슬 픔 에 서 우 리 구 하옵 소 서

기쁜 마음으로

Mozart



1. 나 의 생 명 드 리 니
2. 나 의 생 삶 을 드 리 니
3. 나 의 의 성 드 리 니
4. 나 의 의 능 드 리 니
5. 나 의 의 재 음 드 리 니



주 주 주 주 여 여 반 반 아 주 시 어
주 주 주 주 여 여 반 반 아 주 시 어
주 주 주 주 여 여 반 반 아 주 시 어



감 사 하 는 맘 으 로
선 한 일 을 하 도록
주 신 찬 미 하 위 하신 여
당 원 영 토 광 록 당 하신 을



찬 미 하 게 하 소 서
나 를 어 인 게 하 소 서
깨 사랑 있 게 하 소 서
봉 사 랑 하 게 하 소 서

천사의 양식

Panis Angelicus

성체

Andante religioso

Fr. Lambillotte



1. 천 사 의 양 식 은 우 리 양 식 되 고
 2. 삼 위 의 천 주 여 주 - 께 구 하 오 니
 1. Pa- nis an- ge- li- cus fit pa- nis ho- mi- num;
 2. Te, tri- na De- i- tas u- na- que, po- sci- mus;



- 천 상 의 양 식 을 우 리 게 주 - 시 네
 우 리 의 믿 음 을 어 여 뻔 보 - 시 어
 dat pa- nis coe- li- cus fi- gu- ris ter- mi- num.
 sic nos tu vi- si- ta sic- ut te co- li- mus:



- 오 묘한 신 비 여 가 난 한 주 의 종 주 님
 하 느 님 계 시 는 광 명 의 나 라 로 당 신
 O res mi- ra- bi- lis: man- du- cat Do- mi- num pau- per,
 per tu- as se- mi- tas duc nos quo ten- di- mus, ad lu-



- 모 신 이 큰 - 감 격 아 - 멘
 백 성 이 깎 - 소 서
 ser- vus et hu- mi- lis. A- men.
 cem quam in ha- bi- tas.

성모 승천

성모

Andantino

Penot

이문근 편곡



성모 마리아하늘 나라에 들어 올림 받으시



니 우리도 천국을 그리며 주



찬 미-하 리 다 찬 미-하 리 다



1. 성 자 잉 태 하 신 거룩 한 몸 무 덤
 2. 아 들 예 수 오 른 편 에 앞 아 면 류
 3. 마 음 깨 끗한 이 들 은 모 두 주 님



속 에 안 계 시 게 많 은 천 사 두루 응 위
 관 을 받 으 시 니 천 사 성 인 찬 미 하 는
 뵈 게 되 오 리 니 성 모 우 리 덕 을 향 한



시 노 길 켜 래 부 활 승 천 케 하 셧 네
 길 로 인 도 하 여 주 읍 가 소 서